

기억 밖 일상... 절제된 언어·진지한 사유로 탐색



소설가 정강철 산문집 '기억나지 않는 것들' 펴내 교사와 작가 오가며 일상 서사 파노라마처럼 펼쳐 3부 구성 64편... 삶 시간·즉적 독창적 시선 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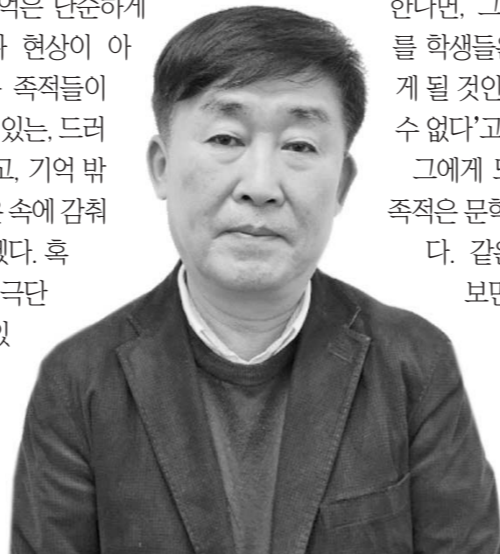
“기억나는 것들은 고만고만했다. 목숨을 걸고 승부를 내야 할 결정적인 장면은 없었다. 알량한 이름이나 명예 따위를 지키고자 분투했던 순간도 없었으니 일상의 사담잡은 기억들 뿐이다. 사람의 기억 장치는 용량의 한계가 있어 죄다 되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왜곡도 있기 마련이다. 지나가 버린 것들, 되돌아오지 않은 과거들이다. 기억나지 않는 것들까지 쓰지 못했다. 감출 수 없는 진실이나 소중했던 가치는 오히려 기억나지 않는 것들에 묻혀 있을 지 모르겠다.”

위 지문은 교단(전 광주 광덕고 국어교사·2026 광남일보 신춘문예 소설 심사위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틈틈이 선 굵은 작품들을 발표해온 중견 소설가 정강철 씨가 최근 펴낸 산문집 '기억나지 않는 것들'(문학사 펴냄)에서 밝힌 자서(책머리글) 전문이다. 우리네 삶은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으로 갈릴 수 있다. 어쩌

면 기억나는 것들이 삶의 전부처럼 여겨지지만 기억나지 않는, 무수히 많은 것들이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형국일 수 있다.

그렇기에 저자가 말하는 기억 안팎을 대하는 자세는 균형적 접점을 균등감있게 잡아 끌며 가는 시간들인지 모를 일이다. 작가에게 기억은 단순하게 기억나는 일이나 현상이 아닌, 삶의 시간과 즉적들이 열거될기 위하여 있는, 드러난 표현일 수 있고, 기억 밖의 일이나 현상은 속에 감춰진 표현일 수 있겠다. 혹은 단순하게 양 극단으로 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저자는 얼마 전까지 교단에 섰었다. 지금은 다만 현직



이 아닐 뿐 그에게 새겨진 시간들은 반평생 교직에 있었다는 것이다.

세월이 지났고, 안일이 빠진 사유들은 모두 부끄러움이라는 기억의 창고에 보관 중인 듯 읽힌다. 제3부 '황토를 추억하다'에서 저자는 '세월을 이기는 장사가 있더라. 백발이 되어버린 교사에게 폐기와 순정이 남아있을 리 없다. 수업에 지치고 아이들에 놀려 이젠 심드렁해졌노라 고백이래도 할라치면 스스로 놀란다. 문예반 지도와 같은 어리석은 고생은 다 때가 있는 법. 젊은 시절 딱 그 무렵의 일이었을 뿐'은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다고 고백한다면, 그렇게 닳아빠진 교사를 학생들은 어떤 시선으로 보게 될 것인가. 부끄러움을 피할 수 없다'고 기술한다.

그에게 또 하나 잊히지 않는 즉적은 문학과 문학지도일 것이다. 같은 페이지(376쪽)에 보면 흔하다 흔한 문학적 향방을 결코 기술하지 않는다. 저자는 책 읽는 아이는 위험했다고 적고 있다. 그 이유로 자신의

나이보다 정신적 키가 더 자랐을테니 컴퓨터 게임이나 스마트 기기 삼매경에 빠진 또래 친구들이 시시해져 보이게 될 것이고, 따라서 그들과 사유의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말을 거는 대신, 결국 말수가 줄어들며 고립되고 나중에는 왕따가 되고 만다는 것이다. 자신의 나이에 걸맞게 자라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에 돌아올 일을, 모두 거창하게 끌고 갈 일이 아니라는 것으로 짐작됐다.

이에 앞서 2부 '문학동인 유감'에서 동인의 현대적 의미를 일갈하는 것 또한 잊지 않는다. 먼저 동인이라 지칭하는 뜻이 같다고 해 모든 사람들로 규정된 뒤 생각이 다른 사람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그걸 형상화해내는 작업을 함께하는 사람들 동인이라고 한다면 동인은 같은 시간에 같은 시선을 갖고 그래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이처럼 저자가 펼치는 산문들은 상투적 시각을 탈피해 작가적 시선으로 툭어울린 일상의 서사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생각지도 못한 사유들 혹은 모두 옳은것만 바라볼 때 왼쪽을 바라보며 문제의 근원을 해부하고자 하는 작가적 고심, 끊임없이

써댄 결과 보통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문제들, 군더더기없이 촌철살인의 자세를 견지하며 전개한 스토리와 구성이 이 산문집에 모두 녹아있다. 먼저 읽은 분들은 “참 괜찮다”는 반응을 전해온다. 그것은 산문집 몇 페이지를 넘겨보면 그냥 안면이 있어서 인사처럼 한발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터다.

이번 산문집은 '빛들의 온도, 문장의 습도', '기억나지 않는 모든 것', '일탈도 힘이 된다' 등 제3부로 구성, 64편의 알토란 같은 저자의 삶과 사유의 조각들이 실렸다.

김형중 문학평론가(조선대 교수)는 표사를 통해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글쓰기의 한계를 고백하며 진실이나 가치는 오히려 기억 너머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고백에는 여러 복선이 깔려 있다”면서 “고교 3학년 때 1980년 5-18을 겪었고, 군부독재와 싸우며 대학을 다녔으며, 참교육 운동의 한복판에 서야 했던 세대. 하지만 중심에 있지 못하고 늘 주변을 떠돌고 만 것이 아닌가 하는 자조에서 자유롭지 못한 세대. 이 책에는 격랑의 시대를 함께 건너왔으나 평범한 이으로 살아온 저들의 삶이 절제된 언어와 진지한 사유로 빛을 내고 있다”고 평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한 시대의 얼굴 기록하고 최옥수



지난 2022년 광주시립사진전시관에서 열린 '사라지고, 살아있다' 사진전 개막식 때 인사말을 하고 있는 생전의 최옥수 사진작가.

시선과 절제된 표현... 독자적 세계 구축

삶과 작업이 남긴 의미 생각... 사람 가치 증언

이번 주 토요일(18일), 광주를 연고로 활동을 펼쳤던 사진작가 고 최옥수 선생님의 49재를 맞는다. 시간은 흘렀지만, 선생님의 부제가 남긴 여운은 여전히 우리 곁에 깊이 머물러 있다.

고 최옥수 선생님은 단순한 사진작가를 넘어, 사람의 삶을 기록하고 시대의 결을 담아낸 기록자였다. 중앙대 사진학과와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영상매체학과에서 수학한 선생님은 조선대, 백제예대, 광주대, 동신대 등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사진 예술의 저변을 넓혀왔다. 또한 월간 '금호문화' 사진기사를 역임하는 등 현장과 교육을 아우르는 폭넓은 활동을 이어갔다.

특히 20여 년 동안 대중문화 사진극장으로 활동하며 표지 인물을 비롯해 누구도 쉽게 모방할 수 없는 독자적인 사진 세계를 구축해 왔다. 인물의 본질을 드러내는 깊이있는 시선과 절제된 표현은 지역 문화예술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선생님의 사진은 화려함보다 사람에게 가까이 있었다.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뿐 아니라 우리 곁의 평범한 이웃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며 그 안에 담긴 삶의 흔적을 담아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색이 없었지만, 오히려 그 어떤 색채보다 깊은 감정과 시간이 스며 있었다.

50여 년에 걸쳐 3000여명이 넘는 얼굴을 기록해 온 그의 작업은 단순한 인물 사진을 넘어선다.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였

고, 공동체의 기억을 축적해 온 소중한 자산이다.

김넷과와 대담미술관의 '얼굴'전 등 10여회 개인전을 통해 한 개인의 얼굴을 넘어 시대와 지역의 기억을 꾸준히 기록해 왔다.

특히 광주시립전시관에서 선보인 다크룸터리 작업은 사라져가는 남도의 풍경과 사람들의 삶을 깊이 있게 담아낸 기록으로 평가된다. 선생님은 생전 인터뷰에서 “지금도 많이 사라진 풍경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 한 컷, 한 컷으로 남기는 일이 저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아날로그 카메라로 포착한 남도의 풍경과 사람들의 일상은 사라져가는 것들을 붙잡아 오늘의 우리에게 되돌려주는 귀한 기록이다. 인위적인 연출을 배제하고 오직 사람과 순간에 집중했던 그의 시선은 결국 삶의 본질을 향하고 있었다.

우리는 선생님의 사진을 통해 타인의 얼굴을 보면서도, 결국 자기 자신의 삶을 마주하게 된다.

49재를 맞는 지금, 우리는 비로소 선생님의 삶과 작업이 남긴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한 시대의 얼굴을 기록해 온 사진가 고 최옥수 선생님이 그가 남긴 수많은 얼굴들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잊지 말아야 할 '사람의 가치'를 묵묵히 증언할 것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정서연 한국산학협동연구원 대변인 '임마와 단둘이 마주 여행' 저자
*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전 명화에 '디지털 기운생동' 결합... 미래 산수 제시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18일부터 강원서 개인전

원주 랜드마크 빙하미술관 AI·인터랙티브 기술 융합

전남 담양 출생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씨가 강원도에서 전시를 마련한다.

16일 이이남스튜디오에 따르면 이이남 작가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6개월여간 강원도 원주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빙하미술관(Glacier Museum of Art)에서 개인전을 '재생중인 기억'(On Repeat: Memory)이라는 주제로 갖는다.

고전 회화와 첨단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작가의 최신작과 대표작들을 총망라한 이번 개인전은 정지된 화면 속에 잠재돼 있던 고전의 시간을 디지털 매체로 깨워낸다는 복안이다.

전시 포포를 열 '기운생동 87마리 새'는 명대 화가 변문진의 '삼우백금도'를 바탕으로, 새들이 공간 전체로 날아오르고 흩어지는 장관을 연출한다. 단순히 이미지를 움직이는 것을 넘어 동양 미학의 핵심인 '기운생동'(氣韻生動)을 현대적 감각으로 극대화했다는 평이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작업들이 눈길을 끈다. '황토농집



'기운생동 87마리 새'

도'에서는 고양이의 미세한 털 떨림과 시선을 시로 생성해 철나의 생명력을 불러넣었으며, '맹호도'에서는 호랑이가 현대

문명의 소음(헬리콥터 소리)을 낮설게 응시하는 유머러스하면서도 날카로운 풍자를 선보인다.

또 전시장 곳곳에는 시공간의 층위를 중첩시킨 파격적인 시도들이 엿보인다. '인왕제색도-사계'는 경제 정선의 산수에 춘하추동의 흐름을 부여해 시간의 순환을 보여주며, '신-단발령망금강'은 고전 산수 속에 현대 도시 문명을 중첩시켜 오늘날의 '도시산수도'를 제시하고,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고흐 자화상'은 스틸미러와 아크릴미러를 활용해 관람객의 얼굴이 명화 속에 투영해 '나는 누구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전시의 하이라이트는 여섯대의 빔프로젝터와 아크릴 거울, 안개 등이 어우러진 몰입형 설치 공간 '미래가 된 산수'가 꼽힌다.

관람자는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주체를 넘어 레이저와 빛이 만들어내는 산수의 공간 안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 이미지와 하나가 되는 '물아일체'(物我一體)의 경험을 하게 된다. 작가는 이를 통해 인간의 DNA와 디지털 데이터가 얽혀 형성되는 미래의 새로운 생명 구조를 시각화했다.

이번 전시는 아셀아트컴퍼니(대표 김수현)가 기획을 맡아 전통적 가치를 동시대적 시각 언어로 풀어내는 전략적인 큐레이팅을 선보인다. 전시 종료 후에도 빙하 카페에서는 AI 기술로 재편집된 미디어아트가 상영돼 관람객의 일상까지 예술적 경험을 확장한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광주과학관, 지역과학문화 역량강화 사업 공모 선정

국립과학관 최초...사업비 5억6200만원 확보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지원하는 '2026년 지역과학문화 역량강화 사업' 공모에서 호남권(광주·전남) 거점센터로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지역과학문화 역량강화 사업'은 지역 중심의 과학문화 확산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참여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권역별 과학문화 거점센터를 지정·운영하는 사업이다. 전국 국립과학관 중 최초로 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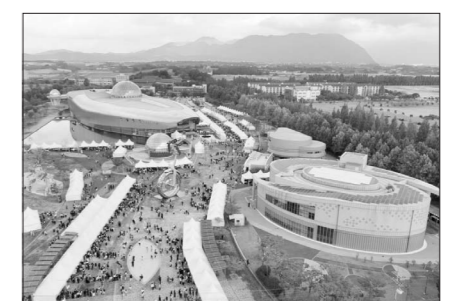
센터로 지정된 국립광주과학관은 이번 선정을 통해 5억6200만원을 지원받으며 광주와 전남을 아우르는 호남권 대표 과학관으로서 지역 과학문화 확산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평가에서 국립광주과학관은 내실 중심의 과학문화 확산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참여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권역별 과학문화 거점센터를 지정·운영하는 사업이다. 전국 국립과학관 중 최초로 거점

전 '위기의 지구, SOS' 개최(3만2000명 방문), 광주시교육청 협력 '광주 수학·과학축제' 개최(8만6000명 방문) 등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

특히 국립과학관 중 유일하게 보유한 이동형 과학전시 차량(루체리움 사이언스 스킵)과 천체관측차량(스타카)을 활용한 '찾아가는 이동과학관' 운영성과와 이동식 순회전시물 싸이킷(Sci-Kit)을 활용한 유관기관 순회전 개최 등은 지리적 한계를 극복한 우수 사례로 꼽혔다.

또한 남녀노소 모두가 생활 속에서 과학을 즐길 수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



로그램'을 통해 차등없는 과학복지 실현을 역량을 갖췄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협력망 측면에서도 35개 회원기관이 가입된 호남권과학관협의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협력·지원 사업을 추진해 온 점이 큰 강점으로 부각됐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있는 지원사업도 추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